

새로운 전북 실현... 2차 특례발굴 속도

자치도, 전문가 구성 '온라인특례발굴실' 개설 5대 분야 75개 사업의 방향설정·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올 하반기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한 2단계 특례발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비전 및 생명산업육성, 전환산업진흥, 기반구축, 도민행복 증진, 자치분권 등 5대 목표 실현을 위해 전북연구원, 출연기관, 의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례사업 발굴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특례발굴에 돌입했다.

추진단은 지난해 1차 개정법률에서 빠진 특례 중 꼭 반영해야 할 특례를 선별해 부처설득을 위한 논리를 보강하고,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특례별 실

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추가 특례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방위적인 소통을 위해 핵심산업 현장을 방문해 산업체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실질적인 특례로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월까지 특례발굴을 추진하고, 3월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부처 설명, 입법과제 법 체계화, 주요 입법과제 세미나 등을 통해 최종 2차 개정법률안을 상반기에 확정하고, 하반기 법안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례발굴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특례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전북소통대로에 '특례발굴실'을 개설해 2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2월 27일부터 특례들의 시행을 앞두고 특례실행준비단을 구성, 생명산업분야 17개 사업을 비롯 전환산업 12개, 생명기반구축분야 14개, 공정한 삶의 질 제고분야 16개, 자치분권분야 15개 사업 등 5대 분야 특례별 추진방향 계획뿐만 아니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개발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종합발전계획' 등 모두 75개에 대한 기본구상도 짜고 있다.

도는 이들 75건의 개별 특례들에 대한 기본구상 과제와 기본계획구역, 실시계획구역 등으로 분류하고 자체 운영은 물론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추진방향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특례별 실행 준비단(TF) 중심의 자체 방향설정과 매월 2회 기본구상과제 추진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해 주요 특례와 여러 부처에 걸친 특례, 쟁점사항이 존재하는 특례에 대한 대응논리 마련과 추진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전문가 이해관계인 참여 등 심층적인 논의를 벌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특별법과 관련한 자치법규 입안시 조례별 논리개발과 조문형식 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도 진행된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1차 개정법률에 반영하지 못해 아쉬웠던 민생 및 전략산업 분야 중심으로 특례 발굴을 추진 중이며, 각 부서, 도내 14개 시·군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꼭 필요한 특례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10억 원 투입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승마인구 저변확대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체력향상에 도움을 주기위해 10억원을 투자해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생승마체험은 성장기 학생에게 말과 교감의 기회를 제공해 정서함양과 체력을 증진시키고,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승마기본 훈련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지원기준은 일반체험 10회 체험비 32만원 중 22만원이 지원되며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및 장애학생에게는 무료로 승마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승마체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2만원은 전액 보조금으로 지급해 안심하고 승마체험을 즐길 수 있다. 승마체험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 추천을 받아 관할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하고, 도내 12개 시군에 설치돼 있는 승마장에서 3월부터 체험을 하게 되며, 승마장이 없는 시군(임실, 무주)은 인근 시군 승마장에서 체험할 수 있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학생승마체험이 학교 생활의 다양한 체험중 청소년들의 심신강화와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통해 승마가 대중적 스포츠로 정착함으로써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중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설날인 지난 10일 김관영 도지사 내외가 전주 경기전에서 도민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도민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 되십시오”

김관영 도지사 내외, 도민에게 건강기원 인사 건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목영숙 여사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설날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민과 고향을 찾은 귀성객을 대상으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덕담 및 세배나눔을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 내외는 한복차림으로

설날인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부터 풍남문과 전통성당, 경기전 방문객과 한옥마을문화장터가 열리는 부스를 찾아 도민과 귀성객, 관광객들에게 정겨운 인사와 덕담을 건넸다.

취임 첫해인 지난해에도 경기전 등지에서 덕담과 인사나눔을 펼쳤고, 올

해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맞이해 첫 설명절인 만큼 도민들에게 백년대계 도약과 전북발전을 기원하는 덕담 및 세배행사를 경기전 인구 마당에서 가졌다.

한편, 김 지사 내외는 한옥마을내에 위치한 승광재를 방문해 '황순 이석선생'을 찾아 문안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김재훈 기자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전북자치도, 23일까지 접수... 사업당 최대 5천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의 정책 참여 강화 및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2024년 전북 청년생생아이디어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북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 사업'은 청년 문제 당사자인 청년이 해결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스스로 사업을 실현하는 청년 참여 예산 성격의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단체 또는 법인으로 △대표가 청년인 경우,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사업참여 구성원의 청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공모주제는 '전북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형 청년정책 사업'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인구, 저출산, 문화 등을 포함한 청년 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단체·법인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등을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전북특자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 달라지는 점은 사업에 대한 청년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청년투표'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청년투표는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https://www.jb2030.or.kr/>)에서 온라인으로 3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며, 투표를 통해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선호도를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전문가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발표심사를 거쳐 투표점수와 합산해 최종 사업이 선정된다. 도는 사업 선정에 있어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청년 참여도, 청년체감도 등을 평가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은 청년이 참여 주체가 돼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책화하는 청년들의 도정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중소사업장 환경관리 해결 나서

전북특별자치도, 45개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기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장으로부터 2월까지 기술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기술지원사업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의지는 있지만 자금과 기술력이 부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개선 방법을 찾아주는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2월까지 신청을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와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기술지원 가능성에 대해 먼저 진단을 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장 특성에 맞는 환경전문가를 1:1로 매칭해 지원을 하게 된다.

환경기술지원단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전문가와 전북환경기술인협회 소속 전문 환경기술인을 중심으로 40여명 규모로 꾸려지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환경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신규 사업장까지 기술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 화학사고로 인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부 문의사항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063-270-39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환경기술지원사업을 통해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신규 사업장이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기술 지원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5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45개 사업장에 대한 법률 자문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관리요령,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기업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